한자검정시험 문제 유형 분석 및 提言

楊 沅 錫*

<目 次>

Ⅰ. 서론
Ⅱ. 문제 유형 분석
1. 漢字
2. 漢字語
Ⅲ. 문제 유형에 관한 提言
Ⅳ. 결론

<국문 초록>

본고는 한자검정시험기관에서 출제하고 있는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아울러 문제 유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초・중・고교 및 각종 한자・한문 교육기관에서 한자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게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가 공인을 받은 한자검정시험기관 중에서 한국어문회, 한자교육진흥회,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의 문제를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이상의 시험 기관에서는 각각 다양한 급수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문제 유형이 가장 다양한 고급에 해당하는 급수의 문제를 주로 검토하였다.

이상 4개 기관의 기출문제를 漢字・漢字語라는 대영역과 形・音・義를 중심으로 하는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를 예시하고 분석하면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주관식 문제와 객관식 문제의 장단점, 旣出된 문제가 한자검정시험의 취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 고려대학교 BK21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연구교수 / yang1st@korea.ac.kr

www.kci.go.kr

이 연구는 한자 시험 출제시 문항 구성의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문제 유형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자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도 문제 유형 파악을 통해 한자 학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한자검정시험, 문제 유형, 한자, 한자어, 한자 교육

Ⅰ. 서론

본고는 한자검정시험기관[1]에서 출제하고 있는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아울러 문제 유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초・중・고교 및 각종 한자・한문 교육기관에서 한자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게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한자검정시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자검정시험의 현황, 배정 한자, 문제 유형,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는 2006년 1월 16일 한국한문교육학회에서 “동아시아 삼국(한・중・일)의 한자 능력 평가 및 한문 교재의 현황과 전망”을 기획주제로 삼아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으며,[2] 이전에도 한자검정시험의 여러 문제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

1) 현재 국가 공인을 받은 한자검정시험기관은 다음과 같이 7개 단체가 있다 : 한국어문회(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한자교육진흥회(한자자격시험),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한국외국어평가원(실용한자자격검정), 한국평생교육평가원(한국한자검정),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한자능력자격검정), 대한상공회의소검정사업단(상공회의소한자시험)

2) 이명학, 「현행 우리나라 한자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재검토」, 『한문교육연구』 2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김경천, 「국가공인 한자능력검정시험의 현황과 문제」, 『한문교육연구』 2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백광호, 「한자능력급수시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한문교육연구』 2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장호성, 「한국 한자능력 검정시험의 등급별 배정한자 문제」, 『한문교육연구』 2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이동재, 「국가공인 민간자격 한자급수의 문항유형 분석과 바람직한 평가문항 모색」, 『한문교육연구』 26, 한국

www.kci.go.kr

이 발표되었다.[3] 특히 한자검정시험 문항의 유형에 대해서는, 이동재의 연구에서 한자급수시험의 기출 문항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살피고 바람직한 문항 유형의 모색을 시도하는 등 세밀하게 검토되었다.[4]

본고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 한자검정시험 문제의 유형을 분류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현재 국가 공인을 받은 한자검정시험기관 중에서 한국어문회, 한자교육진흥회,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의 문제를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이상의 시험 기관에서는 각각 다양한 급수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문제 유형이 가장 다양한 고급에 해당하는 급수의 문제를 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5]

이 연구 결과는 한자 시험 출제시 문항 구성의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문제 유형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자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도 문제 유형 파악을 통해 한자 학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문교육학회, 2006.

3) 이병주, 「한자 자격증 제도에 대하여」, 『한문교육연구』 15, 한국한문교육학회, 2000.; 진재교, 「현행 한자, 한문 급수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안」, 『한문교육연구』 19,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한예원, 「한자, 한문 인증 시험의 현황과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20, 국어교육학회, 2004.; 홍성욱, 「사회 교육 차원에서의 한자·한문 교육의 실태과 과제」, 『한문교육연구』 19,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진재교, 「한자, 한문의 사회적 인식과 수요 조사에 관한 연구」, 『한문교육연구』 25,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김은미, 「한자급수 시험의 현황과 문제점」, 『한문교육연구』 25,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4) 이동재, 앞의 논문.

5) 본고에서 검토 대상으로 하는 한자검정시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는 A, B, C, D 로 略稱한다.

A : 한국어문회, 제41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2008.11.08 시행)

B : 한자교육진흥회, 제37회 한자자격시험 1급. (2008.10.11 시행)

C :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제20회 한자능력자격검정 1급. (2008.2.17 시행)

D :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 2007년 제2회 상공회의소한자시험 고급. (2007.5.12 시행)

www.kci.go.kr

Ⅱ. 문제 유형 분석

한자시험문제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영역을 문제로 출제하는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형식적인 측면에서 주관식과 객관식 등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6)]

본고에서는 문제의 유형을 먼저 漢字에 대한 문항과 漢字語에 대한 문항으로 대분류한 후에, 하위 기준으로 形・音・義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겠다. 즉 한자와 한자어의 표기를 묻는 문제[形], 한자와 한자어의 독음을 묻는 문제[音], 한자와 한자어의 뜻을 묻는 문제[義]가 그것이다. 이러한 분류 방식을 채택한 것은 한자와 한자어가 지닌 속성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는 한자와 한자어의 形・音・義 중에서 어느 한쪽만을 묻는 경우도 있지만, 2-3개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래의 분류는 필자의 임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음을 먼저 밝혀둔다.

1. 漢字

한자에 대한 문항은 한자의 3대 속성인 形・音・義, 그리고 기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가운데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묻는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한자의 造字原理, 部首, 筆劃數, 筆順 등을 대상으로 한 문제도 출제되고 있다.

1) 한자의 形

이것은 한자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의 유형이다.

6) 이동재, 앞의 논문, pp.121-137 참조.

www.kci.go.kr

고급 단계의 문제에서는 한자의 표기만을 묻는 문제는 출제되고 있지 않으나,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略字 표기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이 있다.

[A] ※ 다음 글자의 正字 또는 略字를 쓰시오. 199. 籠　　200. 劑 [C] ※ 漢字의 略字를 쓰시오. 190. 螢　　191. 獻

A기관의 경우 略字에 대해 '획수를 줄인 한자'라고 표시해두고는 있으나, 略字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즉 일반적으로 略字에는 중국어, 일본어, 우리나라에서 쓰는 略字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정한 기준 제시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에서 볼 수 있는 劑의 경우 중국어 簡化字에서는 剂라고 쓰고, 일본어에서는 剤라고 쓰는데, 정답에서는 剤를 제시하고 있다. 또 籠자의 경우 중국에서는 笼이라고 쓰고 일본에서는 籠이라고 쓰는데, 정답에서는 **篭**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略字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한자의 音

한자의 音을 묻는 문제는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를 먼저 제시하고 해당하는 음을 찾는 것, 한자의 음을 먼저 제시하고 해당하는 한자를 찾는 것, 한자를 제시하고 같은 음을 가지는 한자를 찾는 것으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www.kci.go.kr

[D] ※ 다음 한자(漢字)의 음(音)은 무엇입니까?
31. 鈍 : ① 둔 ② 순 ③ 돈 ④ 선

[D] ※ 다음 음(音)을 가진 한자는 어느 것입니까?
46. 규 : ① 構 ② 棄 ③ 軌 ④ 叫

[B] ※ 다음 [ ] 안의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는?
1. [棲] ① 猜 ② 櫻 ③ 楫 ④ 曙

한편, 다음과 같이 한자가 2개 이상의 음을 가지는 多音字에 대해서 그 음을 직접 표기할 것을 주문하는 형식도 있다.

[A] ※ 다음 漢字의 讀音을 2가지씩 쓰시오
76. 畝 ( ) 77. 陝 ( ) 78. 佚 ( ) 79. 炙 ( )

多音字는 하나의 한자가 다른 뜻을 가질 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음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率은 '헤아리다'의 뜻일 때 '률', '거느리다'의 뜻일 때 '솔', '우두머리'의 뜻일 때 '수'로 발음되어 그 뜻을 구분해 준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된 예의 경우 炙의 음이 '자'와 '적'으로 다르게 발음되어도 그 뜻은 '굽다'로 동일하며, 畝의 경우도 '무'와 '묘'로 발음되지만 그 뜻은 '이랑'으로 동일하다. 多音字를 묻는 문제는 가급적 率의 경우처럼 음이 달라지면서 뜻도 달라지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3) 한자의 義

한자의 뜻을 묻는 문제는 한자를 먼저 제시하고 해당하는 뜻을 묻는 것, 뜻을 먼저 제시하고 해당하는 한자를 묻는 것이 기본적인 형식이다. 이것은 아래 예의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세 번째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를 제시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한자[同義字]를 묻

www.kci.go.kr

는 문제, 네 번째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되는 뜻을 가진 한자[反義字]를 묻는 문제 등도 출제되고 있다.

[D] ※ 다음 한자(漢字)의 뜻은 무엇입니까?
76. 戴 : ① 이다 ② 재단하다 ③ 줍다 ④ 펼치다

[B] ※ 다음 [ ] 안의 뜻을 가진 한자는?
9. [오랑캐] ① 枸 ② 胸 ③ 匈 ④ 幻

[D] ※ 다음 한자(漢字)와 뜻이 비슷한 한자는 어느 것입니까?
97. 馨 : ① 芬 ② 紆 ③ 肱 ④ 夭

[B] ※ 다음 [ ] 안의 한자와 상대되는 뜻을 가진 한자는?
12. [仰] ① 播 ② 俯 ③ 劣 ④ 苛

한편, 다음과 같이 한자의 음과 뜻을 동시에 묻는 유형도 출제되고 있다.

[C] ※ 다음 漢字의 訓과 音을 쓰시오.
75. 攘 ( ) 76. 渦 ( ) 77. 宥 ( )

[B] ※ 다음 훈음에 맞는 한자를 쓰시오
주76. 몸 궁 ( )

[B] ※ 다음 한자의 뜻·음과 총획수를 쓰시오
주56. 閻 (뜻 : 음: 총획수 :)

4) 한자의 字源

한자의 字源을 묻는 문제는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즉 造字原理를 묻는 문제라고 하겠다.

www.kci.go.kr

[D] ※ 다음 한자(漢字)와 그 조자(造字)의 방식이 같은 한자는 어느 것입니까?
20. 宇 : ① 春 ② 上 ③ 下 ④ 浴

[C] ※ 字源 풀이에 해당하는 漢字를 찾아 그 번호를 쓰시오.
147. 대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본뜬 것으로 '가지'를 뜻하는 글자
① 絲 ② 編 ③ 支 ④ 采 ⑤ 奚

D기관에서 제시한 문제를 보면, 宀과 于로 이루어진 形聲字인 宇자를 제시하고, 보기 중에서 형성자인 浴자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字源을 묻는 문제는 象形, 指事, 會意, 形聲 등에 대한 異說이 없는, 즉 조자원리가 분명하게 정립된 것만을 문제로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서 제시한 예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예를 들어보면 光,[7] 政,[8] 東[9]자

7) 光은 '활활 타는 조명용 등잔불을 머리에 이고 꿇어 앉아 있는 사람'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사람과 등잔불의 뜻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會意字이다. 그러나 사람과 등잔불을 하나로 보고 그것을 본뜬 것에 초점을 두어 象形字로 보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異說이 있는 경우에는 자원을 묻는 문제로 출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8) 政은 正과 攴으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여기서 正(적국의 성을 향해 진격해 가는 병사들의 발 모양을 본뜬 글자로 '정벌하다'는 본뜻을 가지고 있으며 후에 '바르다', '바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됨)은 뜻의 요소로도 쓰이지만 '정'이라는 발음을 나타내는 음의 요소로도 쓰인다. 攴(손으로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두들기다', '치다'의 뜻을 가짐)은 의미 요소로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政자는 形聲兼會意字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政자를 형성자로만 보는 주장도 있고, 회의자로만 보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形聲兼會意字는 형성이나 회의만으로 판정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는 글자는 자원을 묻는 문제로 출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9) 東자는 '양쪽 끝을 묶을 수 있는 긴 자루'의 모양을 본뜬 것으로 象形字이다. 지금 쓰이는 '동쪽'이라는 뜻은 假借되어 쓰여진 것이다. 한편『說文解字』卷六上에서는 "從日在木中"(해가 나무 가운데에 걸려 있는 모습에서 뜻을 취함)라고 풀이하였는데, 이러한 해석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東자는 분명한 상형자이기는 하지만, 문자학적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 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하는 한자시험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문제로 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www.kci.go.kr

등은 문제 출제시 고려야할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출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C기관의 유형인 “대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본뜬 것으로 ‘가지’를 뜻하는 글자”라는 문제는 응시자가 字源을 알지 못해도 ‘가지’라는 뜻을 문항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支’의 뜻이 ‘가지’라는 것을 안다면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은 字源을 묻는 문제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다.

5) 部首, 筆劃數, 筆順

한자의 3대 속성인 形・音・義를 묻는 문제 외에도, D기관에서는 앞서 살펴본 字源을 묻는 문제를 비롯하여, 한자의 部首・筆劃數・筆順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筆劃數와 筆順을 묻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한자의 필획수와 필순이 확정되어야 문제의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물론 필획수와 필순은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右자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획의 순서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으며[10] 또한 之자의 경우 필획이 몇 획인지에 대해서도 異見[11]이 있을 수 있다.

中國의 경우 1997년 교육부에서 『現代漢語通用字筆順規範』[12]을 제시하여, 국가 차원에서 한자의 필획수와 필순을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필획수와 필순에 대해서는 표준적으로 정해진

10) 민중서림 『漢韓大字典』에서는 右자의 필순으로 첫 획으로 ‘ノ’을 쓰고, 둘째 획으로 ‘一’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一’을 먼저 쓰고 ‘ノ’을 두 번째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중국의 『現代漢語通用字筆順規範』에서는 ‘一 ’을 먼저 쓰고 ‘ノ’을 두 번째로 쓰는 것을 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11) 민중서림 『漢韓大字典』에서는 之자의 총획수를 4획으로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之자는 쓰는 사람에 따라 3획으로 쓰기도 한다. 중국의 『現代漢語通用字筆順規範』에서는 之자의 획수가 3획임을 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12)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 『現代漢語通用字筆順規範』, 北京: 語文出版社, 1997.

www.kci.go.kr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필획수와 필순에 대한 문제 출제시 異見이 있는 한자에 대해서는 출제를 삼가야할 것이다.

2. 漢字語

대부분의 한자검정시험기관에서는 현대 국어생활에서의 한자어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한자어를 묻는 문제의 비중은 높은 편이며 또한 문제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한자어의 形・音・義 및 기타의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도록 하겠다.

1) 한자어의 形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한자의 形'의 항목과 마찬가지로 漢字語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으로 한자어의 표기를 묻는 문제와, 또 하나는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한자어의 표기를 묻는 문제가 그것이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아래의 예와 같이 한자어의 음과 뜻을 제시하고 한자로 올바르게 표기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B] ※ 다음 [ ] 안에 주어진 단어를 한자로 쓰시오.
주29. [오류] : 그릇된 일 ( )

두 번째 유형, 즉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한자어의 표기를 묻는 유형으로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경우가 있다.

[A] ※ 다음 글에서 밑줄 그은 單語를 漢字로 쓰시오.
90. 그는 대범하면서도 섬세한 一面이 있다.

[B] ※ 다음 문장의 ( ) 안 한자어가 바르게 쓰인 것은?
20.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경계) 태세를 갖추었다.
① 境誡 ② 傾誡 ③ 警戒 ④ 驚戒

www.kci.go.kr

[D] ※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單語)를 한자(漢字)로 바르게 쓴 것은 어느 것입니까?
245. 죄인들은 포박당한 채 한 줄로 늘어서 있었다.
① 匍箔 ② 浦毫 ③ 捕縛 ④ 匏搏

[B] ※ 다음 문장의 잘못 쓰인 한자를 바르게 고치시오.
주22. 가족들과 함께 坤蟲 박람회에 다녀왔다. (→)

[D] ※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한자어(漢字語)의 한자표기(漢字表記)가 바르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232. 이 사람은 수많은 ①構聲員들을 ②苦痛의 질곡에서 ③幸福의 길로 인도한 ④英雄입니다.

[D] ※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한자어(漢字語)는 어느 것입니까?
222. 소화제를 □□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① 多量 ② 定量 ③ 多數 ④ 定數

[B] ※ 다음 문장의 ( )에 들어갈 한자어가 적당한 것은?
42. 새 정부는 부패 ( )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① 剔抉 ② 灌漑 ③ 補償 ④ 彛倫

[B] ※ 다음 □ 안에 들어갈 한자를 쓰시오.
주88. □襲 : 적이 대비하지 않은 틈을 타서 습격함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장 속 단어의 바른 한자 표기, 문장 속 단어의 잘못 쓰인 한자 바르게 고쳐 쓰기, 문장의 문맥에 따라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한자어의 표기 등의 유형이 있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同音異義語를 활용하여 문제를 출제할 경우 문제의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팀은 후반전에 들어서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구절을 제시하고 ‘고전’의 한자 표기를 묻게 되면, 응시자가 ‘苦戰, 古典, 古錢, …’ 등의 다양한 한자 표기 중에

www.kci.go.kr

서 문맥상 '苦戰'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한자어의 표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서 문맥에 맞는 적절한 한자어의 표기를 찾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항에서 문장을 제시하는 의의를 지닐 수 있게 된다. 뒤에 살펴볼 '同音異義語' 항목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 문제 유형을 찾을 수 있는데, 가급적 문장 속에서의 한자어 표기 문제는 문맥을 고려하여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식으로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한자어의 音

앞에서 살펴본 '한자어의 形'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한자어의 음을 묻는 문제와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한자어의 음을 묻는 문제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다음은 직접적으로 한자어의 독음을 묻는 문제 유형이다.

[A] ※ 다음 漢字語의 讀音을 쓰시오.
41. 隙駒 (　　)　42. 靡寧 (　　)　43. 褒貶 (　　)

[B] ※ 다음 한자어의 독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
13. ① 廣闊 : 광활　② 陶冶 : 도야
③ 魅惑 : 매혹　④ 褒賞 : 보상

[D] ※ 다음 한자어(漢字語)들 중 괄호 안의 한자(漢字)의 발음(發音)이 다른 한자어는 어느 것입니까?
135. ① 減(殺)　② 屠(殺)　③ (殺)身　④ (殺)人

[A] ※ 다음 각 항에서 첫 音節이 긴 소리로 나는 것을 1개씩 가려 그 기호(㉮-㉱)를 쓰시오.
129. ㉮ 音響　㉯ 蔓延　㉰ 偉大　㉱ 諺解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한자어를 제시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독음을 쓰

www.kci.go.kr

거나 바르지 않은 독음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또한 세 번째 예에서 볼 수 있듯이 多音字의 경우를 묻는 형식도 있으며, 네 번째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어에 사용된 한자의 長短音을 묻는 방식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 중에 '畝'와 '炙'의 경우처럼 단순히 漢字의 讀音을 2가지씩 쓰도록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것 보다는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殺이 어떤 한자와 결합하여 한자어가 될 때에 '살'과 '쇄'의 두 가지 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묻는 방식이 좀 더 어휘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문제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殺의 독음을 묻고 답안으로 '살'과 '쇄'를 쓰는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減殺, 屠殺, 殺身, 殺人'을 제시하면서 殺의 발음을 묻는 것이 효과적인 문항이라고 하겠다.

한자어의 長短音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이동재는 장단음에 대해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제시된 곳이 없다는 점과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한자어의 음에 대한 언급에서 장단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들면서, 한자어의 장단음이 오늘날의 언어생활에 크게 활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13)]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한자어의 음을 묻는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B] ※ 다음 문장 중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
> 주91. 함경도 일대에 있던 沃沮는 후에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　　)
>
> [D] ※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한자어(漢字語)의 음(音)은 무엇입니까?
> 215. 그는 오랜 煩悶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 ① 고심　② 번민　③ 고민　④ 번뇌

이러한 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정답의 힌트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귐을 가벼이 하고 絶交를 쉽게 함은 군자가 부끄러

13) 이동재, 앞의 논문, pp.126-127.

www.kci.go.kr

위하는 바이다.”라는 문장을 주고서 絶交의 독음을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보기로 “①사교 ②비교 ③친교 ④절교”를 제시한 것이 있다.[14] 여기서 보기로 제시된 4가지는 ‘사교, 비교, 친교, 절교’로 이미 交자의 발음이 제시되어 있어 결국은 絶자 한 글자의 발음만을 묻는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위의 두 번째 예에서 만약 보기를 “①번잡 ②번민 ③착잡 ④애민”이라고 제시한다면 한자의 독음을 알지 못해도 문맥상 ‘②번민’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만 품질 좋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 것이다.

3) 同音異義語

[A] ※ 다음 單語의 同音異義語를 漢字로 쓰되 제시된 뜻에 맞게 하시오.
(169) 空砲 - ( )( ) : 무서움

[C] ※ 주어진 漢字語와 同音異義語이면서 제시한 문장의 ( ) 안에 들어갈 적합한 漢字語를 漢字로 쓰시오.
140. 繪畵 : 최근 한국어 ( )를 배우는 사람이 많다.

[D] ※ 다음 한자어(漢字語)와 발음(發音)이 같은 한자어는 어느 것입니까?
129. 歡迎 : ① 銅鏡 ② 瞳孔 ③ 幻影 ④ 靜境

이것은 한자어의 음은 같지만, 그것의 뜻과 표기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묻는 유형이다.

국어생활에서 한자가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同音異義語를 구별해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식’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문맥이 없다면 이 단어가 寒食, 韓食, 韓式 중의 어느 것인지를 알 수 없으나, 한자로 표기하였을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한자 학습이 현재의 국어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同音異義語를

14) 대한상공회의소 2006년 제1회 고급 문제.

www.kci.go.kr

묻는 문제는 한자시험에서 비중 있게 출제해야할 유형이라고 하겠다.[15]

앞서 '1) 한자어의 形' 부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위의 두 번째 예시처럼 문장의 문맥에 따라 적절한 한자어를 고르는 문제는 매우 유용한 문제 유형이다.

4) 한자어의 義

① 직접 한자어의 뜻을 묻는 문제

[B] ※ 다음 설명이 뜻하는 것은?
26. 몸 따위가 굳어서 뻣뻣하게 됨
① 剛毅 ② 硬直 ③ 楹棟 ④ 潰瘍

[B] ※ 다음 한자어의 뜻풀이가 잘못된 것은?
49. ① 壅塞 : 생활이 몹시 군색함
② 錨地 : 황폐하고 덤불이 우거진 곳
③ 終熄 : 한때 매우 성하던 것이 주저앉아서 그침
④ 孵化 : 동물의 알 속에서 새끼가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옴

[C] ※ 주어진 뜻풀이에 해당하는 漢字語를 찾아 그 번호를 쓰시오.
193. 남의 잘못을 몹시 따지고 공격함
① 駁雜 ② 矜恤 ③ 恤民 ④ 矜誇 ⑤ 攻駁

[A] ※ 다음 뜻풀이에 알맞은 單語를 漢字로 쓰시오.
103. ( )( ) : 수술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감각을 마비시킴

[A] ※ 다음 漢字語의 뜻을 10음절 이내로 간단히 쓰시오.
187. 庇護 ( )

[B] ※ 다음 한자어의 속뜻을 쓰시오.
주55. 寒酸 ( )

15) 이동재, 앞의 논문, p.128.

www.kci.go.kr

한자어의 뜻을 제시하고 해당하는 한자어를 쓰거나 찾는 유형, 한자어를 먼저 제시하고 그것의 바른 뜻을 쓰거나 찾는 유형이 있다.

② 문장 속 한자어의 뜻

[D] ※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한자어(漢字語)의 뜻풀이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220. "이 제도를 도입하기까지 직원들의 激烈한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① 비밀이 새어 나감
② 정보를 서로 주고받음
③ 말이나 행동이 세차고 사나움
④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일을 함

[D] ※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單語)나 어구(語句)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낸 한자(漢字) 또는 한자어(漢字語)는 어느 것입니까?

249. 그의 어머니가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덕행을 하여서인가? 그에게는 언제나 운이 따른다.

① 武力 ② 他德 ③ 陰德 ④ 運動

문장 속에 사용된 한자어의 바른 뜻을 찾는 유형, 문장 속의 구절의 뜻에 해당하는 한자어를 찾는 유형이 있다.

③ 뜻이 비슷한 한자어(同義語)

[A] ※ 다음 單語의 同義語를 한 가지씩 쓰시오.

113. 瞬間 114. 隆替 115. 昇遐

[A] ※ 다음 각 漢字와 訓이 같은 漢字를 써넣어 單語가 되게 하시오.

153. 祥( ) 154. 誤( )

[C] ※ 주어진 漢字와 뜻이 같거나 비슷한 漢字를 ( ) 안에 써 넣어 漢字語를 완성하시오.

159. ( )匿 160. 昻( ) 161. ( )翔

www.kci.go.kr

한자어를 제시하고 뜻이 같은 한자어를 쓰는 유형이 가장 일반적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에서 볼 수 있듯이 제시된 한자와 같은 뜻을 가진 한자를 넣어서 단어를 완성하는 유형도 있다.

後者의 경우 같은 뜻을 가진 한자를 넣어서 단어를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항 분류에서 '漢字語'가 아닌 '漢字'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완성된 형태가 한자어이므로 '漢字語'의 항목으로 분류하였음을 밝혀 둔다.

④ 뜻이 相對되는 한자어[相對語]

[A] ※ 다음 漢字語의 反意語를 쓰시오.
176. 銳利　　177. 膨脹

[D] ※ 다음 한자어(漢字語)와 뜻이 반대(反對)이거나 상대(相對)되는 한자어는 어느 것입니까?
180. 懦弱 : ① 强靭　② 公共　③ 富强　④ 縫合

[A] ※ 다음 각 漢字와 뜻이 反對 또는 相對되는 漢字를 써넣어 單語가 되게 하시오.
133. 干(　)　　134. 嫡(　)

[C] ※ 주어진 漢字語와 反對 또는 相對되는 漢字語가 되도록 (　) 안에 알맞은 漢字를 쓰시오.
(149) 奢侈 ↔ (　)素　　(150) 阿諂 ↔ (　)諫

한자어를 제시하고 相對되는 한자어를 쓰거나 찾는 유형이 가장 일반적이며, 세 번째의 경우처럼 제시된 한자와 상대되는 뜻을 가진 한자를 넣어서 단어를 완성하는 유형, 네 번째의 경우처럼 빈 칸에 적절한 한자를 넣어서 제시된 한자어와 상대되는 한자어를 완성하는 유형이 있다.

www.kci.go.kr

5) 漢字成語

[A] ※ 빈칸에 알맞은 漢字를 써 넣어 앞뒤 대칭 구조의 四字成語를 完成하시오.

120. 焚書(　)(　)　　121. (　)(　)誣民

[C] ※ (　) 안에 알맞은 漢字를 써 넣어 四字成語를 완성하시오.

(179) 垂簾聽(　)　　(180) 事必(　)正

[D] ※ 다음 성어(成語)에서 '□'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漢字)는 어느 것입니까?

189. 切□琢磨 : ① 磋　② 蹉　③ 差　④ 稍

[B] ※ 다음 한자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진 것은?

39. 焦眉之急 : ① 兎死狗烹　② 迂餘曲折
③ 一觸卽發　④ 股肱之臣縫

[D] ※ 다음 성어(成語)의 뜻풀이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181. 三顧草廬
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
② 전원에서 편안하게 즐기다.
③ 인재를 맞이하기 위해 참을성 있게 노력하다.
④ 화를 세 번 참으면 어떠한 재앙도 막을 수 있다.

[D] ※ 다음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낸 성어(成語)는 어느 것입니까?

200.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받아들이거나 배신하다.
① 格物致知　② 苛斂誅求　③ 韋編三絶　④ 甘呑苦吐

漢字成語는 앞서 살펴본 한자어의 形・音・義 각각에 분류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한자성어에 대한 문제 유형을 한 곳에 모아두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빈 칸에 한자를 넣어 成語를

www.kci.go.kr

완성하기, 성어의 바른 뜻풀이 찾기,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성어 찾기 등의 유형이 있다.

6) 기타

이 밖에도 漢字語와 관련된 문제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D] ※ 다음 단어들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한자(漢字)는 어느 것입니까?
159. □護, 抱□, □立 : ① 對 ② 擁 ③ 保 ④ 壑

[D] ※ 다음 한자어(漢字語)와 그 새김의 방식이 같은 한자어는 어느 것입니까?
105. 波瀾 : ① 憧憬 ② 燔肉 ③ 喘息 ④ 刮目

[D] ※ 271. ㉣'공간'의 '공'과 같은 한자를 사용한 것은?
① 公法 ② 提供 ③ 貢獻 ④ 空白

첫 번째 예는 빈 칸에 적절한 한자를 넣어서 한자어를 완성시키는 유형이다. 즉 □ 안에 擁자를 넣게 되면 擁護, 抱擁, 擁立의 단어를 완성할 수 있음을 측정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 예는 한자어의 새김의 방식 즉 짜임을 묻는 문제이다. 波瀾은 '물결 파', '물결 란'으로 이루어진 같은 뜻의 한자가 병렬된 구조이다. 보기 중에서 憧憬은 '그리워할 동', '그리워할 경'으로 이루어져서 波瀾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이 문제의 경우 波瀾은 같은 뜻의 명사가 병렬되어 있으며, 憧憬은 같은 뜻의 동사가 병렬되어 있다. 이 문제의 경우 가급적 같은 뜻을 가지면서 품사도 같은 것, 예를 들면 '瑕疵'와 같은 단어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세 번째 예는 문장 속에서 '공간'이 어떤 한자로 써야 하는지를 알고, '공간'의 '공'과 같은 한자를 사용한 한자어를 보기 중에서 고르는 문제

www.kci.go.kr

이다. 지문의 해당 문장은 “만지고 조사하며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인데, 여기서 ‘공간’은 ‘空間’으로 표기되며 따라서 정답 ④번을 고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유형은 문장의 문맥 속에서의 한자어 표기를 알아야 하며, 이것과 같은 한자가 쓰인 한자어를 보기 중에서 찾아야 하는 종합적인 문제 유형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漢字와 漢字語라는 대분류, 그리고 소분류로 形・音・義 및 기타의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지문을 제시하고 지문 내에 있는 한자, 한자어, 구절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는 유형도 있으며, 또한 漢文 문장을 해석하는 유형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지문형 문제의 경우, 앞서 살펴본 다양한 문제 유형을 종합적으로 출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문장의 문맥 속에서 적절한 한자와 한자어를 선택하게 하는 문제를 출제하는 데에 유용하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문제 유형이지만 A기관의 경우 지문형 문제를 출제하고 있지 않으며, C기관의 경우 지문형 문제이면서도 한자어의 한자 표기만을 묻는 단순한 형식으로 출제하고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

漢文 문장을 해석하는 문제 유형은 B와 C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한자를 익히는 것이 한문 학습을 위한 기초적 단계이며 또한 한자 학습을 통해 한문 학습을 병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한자 능력을 측정하는 한자검정시험에서 한문 문제까지 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異論의 여지가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문 학습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한자 교육은 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또 국어의 어휘력을 넓히기 위함이 주요 목적이라는 점과,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하는 한자검정시험에서는 한자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하는 것이 그 성격에도 맞을 뿐 아니라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한문 문제의 출제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www.kci.go.kr

Ⅲ. 문제 유형에 관한 提言

1. 주관식과 객관식 문항

앞서 살펴본 4개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자검정시험 문항을 살펴보면, 고급 문제에 있어서 A기관은 100% 주관식, B와 C기관은 주관식과 객관식 혼용, D기관은 100% 객관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주관식을 강조하는 문제 유형은 기본적으로 응시자가 한자를 정확하게 써야 함을 요구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한자 교육에서 필수적인 사항이며, 현재에도 한자 학습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자 쓰기를 강조하는 것은 응시자로 하여금 한자 학습에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며,[16] 채점의 공정성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반면 D기관의 경우처럼 객관식 문항을 100% 출제하는 것은 응시자가 한자를 보고 읽고 이해하는 것을 측정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한자를 필기하기 보다는 컴퓨터에서 타자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으며, 또한 서적이나 인터넷 등에서 한자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 더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한자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도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성을 추구해야할 필요도 있게 되었다.[17] 이에 따라 D기관의 경우처럼 객관식으로만 문제를 출제하는 곳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응시자로 하여금 한자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16)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C기관의 경우 한자 쓰기 문제는 해당 급수의 2단계 아래에서 출제한다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17) 김창호는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 한자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읽기 위주'의 한자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김창호, 「漢字敎育 環境의 變化와 '읽기 위주'의 漢字敎育」, 『한자한문교육』 18,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7.)

www.kci.go.kr

하며 채점의 공정성도 담보하게 된다. 아울러 객관식으로만 문제를 출제할 경우 한자시험도 CBT(Computer Based Test) 또는 WBT(Web Based Test) 방식으로의 문제 출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객관식 위주의 문제는 현대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한자 시험 유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객관식 방식의 문제 출제는 전통적으로 중시되어온 한자 쓰기 부분에 대한 학습을 소홀하게 하고 응시자들이 한자 쓰기를 도외시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주관식과 객관식의 문제 유형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한자검정시험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시해 온 한자 학습 방법 중의 하나가 한자 쓰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겠다.

2. 한자검정시험의 목적과 문제 유형과의 적합성

한자검정시험 기관에서는 한자 시험의 목적과 검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D기관의 경우 한자검정시험의 목적으로 “본 시험은 국어 생활 속의 한자어 및 한자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 검정으로서, 학생들은 물론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에게 한자 및 한자어의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한자 및 한자어의 이해와 활용 능력을 제고하며 아울러 그 결과를 진학,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검정 기준으로는 “본 시험은 ‘국어 생활 속의 한자어 및 한자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밝히고 있다.[18] 기타 단체의 경우 직접적으로 시험의 목적과 검정 기준을 밝히지 않은 곳도 있지만, 그러나 위와 유사한 목적과 검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국어 생활 속의 한자어 및 한자에 대한 이해와 활용

18) 박성규・윤재민・박종우・백광호, 「상공회의소 한자 시험 세부기준 및 시행방안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2005. p.53.

www.kci.go.kr

능력 평가'라는 한자검정시험의 목적이 실제 출제되고 있는 문제 유형에서 적합하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급 단계의 경우 출제 기준이 해당 급수에 해당하는 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상 국어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한자나 한자어를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脫殼, 沙汰, 砒酸, 搔爬, 縊殺, 蠢愚, 靡寧 등을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단어들은 국어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것이므로 한자검정시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다.[19]

고급 급수의 경우 배정 한자의 한계로 인해, 그리고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겠지만, 과도하게 어렵고 또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한자와 한자어를 묻는 것은 시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급수를 맞추기 위한 '문제를 위한 문제'의 출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한자 학습을 통해 漢文 학습에까지 나아가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한자검정시험이 국어 생활 속의 한자어 및 한자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평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漢文 문제에 대한 출제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略字를 문제로 출제하는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 보아야할 대상이라고 하겠다.

Ⅳ. 결론

본고는 한자검정시험기관에서 출제하고 있는 문제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한자

19) 이동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였으며, 死藏語로 볼 수 있는 단어의 출제를 지양하고 실생활에 활용되는 한자어를 출제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長短音을 묻는 문제도 현재의 국어생활을 고려해 볼 때 그다지 비중있는 문항 유형이 아님을 밝혔다.(이동재, 앞의 논문, pp.125-128.)

www.kci.go.kr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현행 국가 공인 한자검정시험기관의 문제 가운데 4개 기관의 고급 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 대상의 대영역으로 漢字・漢字語를 두었으며 세부 영역으로 漢字와 漢字語의 形・音・義 및 기타로 나누어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주관식 문제와 객관식 문제의 장단점, 출제된 문제가 한자검정시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한자검정기관의 시험 문제를 검토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또한 고급에 해당하는 급수의 것으로 한정하여 검토하였기 때문에, 한자검정시험 문항의 전반적인 양상을 모두 다루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새로운 문항 형식이나 모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자의 속성에 해당하는 각 요소에 대해 어떠한 문항 유형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은 앞으로 한자 문제를 출제할 때에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출제자는 다양한 문제 유형과 그것의 장단점을 확인한 후에, 적합한 문제 유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 각종 한자 시험 모형을 구성하는 데에도 일정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參考 文獻>

김경천, 「국가공인 한자능력검정시험의 현황과 문제」, 『한문교육연구』 2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김은미, 「한자 급수 시험의 현황과 문제점」, 『한문교육연구』 25,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김창호, 「漢字敎育 環境의 變化와 '읽기 위주'의 漢字敎育」, 『한자한문교육』 18,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7.

www.kci.go.kr

박성규・윤재민・박종우・백광호,「상공회의소 한자 시험 세부기준 및 시행 방안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2005.

백광호,「한자능력 급수시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한문교육연구』2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이동재,「국가공인 민간자격 한자급수의 문항유형 분석과 바람직한 평가문항 모색」,『한문교육연구』2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이명학,「현행 우리나라 한자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재검토」,『한문교육연구』2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이병주,「한자 자격증 제도에 대하여」,『한문교육연구』15, 한국한문교육학회, 2000.

장호성,「한국 한자능력 검정시험의 등급별 배정한자 문제」,『한문교육연구』26,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진재교,「현행 한자, 한문 급수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안」,『한문교육연구』19,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한자, 한문의 사회적 인식과 수요 조사에 관한 연구」,『한문교육연구』25, 한국한문교육학회, 2005.

한예원,「한자, 한문 인증 시험의 현황과 개선 방안」,『국어교육학연구』20, 국어교육학회, 2004.

홍성욱,「사회 교육 차원에서의 한자・한문 교육의 실태과 과제」,『한문교육연구』19, 한국한문교육학회, 2004.

中國 教育部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現代漢語通用字筆順規範』, 北京: 語文出版社, 1997.

한국어문회, 제41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2008.11.08 시행)

한자교육진흥회, 제37회 한자자격시험 1급. (2008.10.11 시행)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제20회 한자능력자격검정 1급. (2008.2.17 시행)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 2007년 제2회 상공회의소한자시험 고급 (2007.5.12 시행)

www.kci.go.kr

Abstract

Type analyses and proposals of a Chinese characters certificate examination

*/ Yang Won Seok**

This article aims to classify the questions set by a Chinese characters certificate examination institute by type, analyze their respective features and also give opinions on a question type so that the opinions may be referred to when an elementary school, junior·senior high school and various Chinese characters·Chinese writing educational institute set Chinese characters test questions.

To do that, the review was conducted on the questions of Korea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and writing(韓國語文會), Korea Institute of Hanja Level Qualification Evaluation(漢字教育振興會), Korea Institute of Chinese characters·Chinese writing ability (韓國漢字漢文能力開發院),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大韓商工會議所) among Chinese characters certificate examination institutes that were acknowledged by the nation. These respective institutes set various classes of questions, and I mainly reviewed questions belonging to the most high-ranking ones.

This study divided the questions already set by the above-mentioned institutes into a large sphere of Chinese characters and Word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and a detailed sphere centering around a type, a sound and a meaning, and examined each feature illustrating questions falling into each sphere. Also, opinions on merits/demerits of subjective and objective questions, and their compatibility with the goal of a Chinese characters certificate examination, etc. were given.

*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BK21 The Education and Research Group for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yang1st@korea.ac.kr

www.kci.go.kr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from the aspect of question construction when a Chinese characters test is given and also used reference materials for developing new types of questions. In addition, even candidates in Chinese characters tests could learn effectively Chinese characters through analysis of question types.

【Key words】Chinese characters certificate examination, question type, Chinese characters, Chinese writing, Chinese characters education

투고일 : 11월 8일, 심사일 : 11월 18일, 게재확정일 : 12월 1일

www.kci.go.kr